

여수시립미술관 어디에 지을까 의견 분분

공청회 예술마루 인근 2개간 설명 설문조사서 박람회장 한국관 36% 일부 시의원 "시민 의견 더 수렴"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의 건립 위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시청 예술마루에서 시립미술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적정 위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2차 시민공청회'이며, 건립 위치에 대한 윤곽이 예정돼 관심이 집중됐다.

공청회는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대상지 결정 등에 대한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 미술관 건립에 대한 의견, 중요사항 및 이유, 미술관 건립 형태 및 규모, 미술관 전시기획 주제 및 내용, 여수시에 맞

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발표됐다. 용역을 수행 중인 지식산업연구원(주)의 주제발표와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 및 문화 관련 전문가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시 적정 위치에 대한 설문 조사와 입지분석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설문조사에 답한 시민들은 시립미술관 건립 위치는 박람회장 한국관(36.5%)을 적정 위치로 꼽았다. 이어 예술마루 옆 마마공원(22.30%), 남산공원 15.8%, 화장동 선사 유적 10.40%, 돌산공원 미조성 부지 7.3%, 고소동 등기소 3.1%, 기타 3.50% 순이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시 적정 위치에 대한 이유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4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빈약한 곳에 건립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28.5%,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22.5%였

다.

이날 제공된 공청회 자료에서는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기본 계획상 용천동 예술마루 인근에 두 가지 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과 방청객들이 미술관 위치를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는 등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다 공청회에서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여수시는 12월 7일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수시립미술관의 최종 위치도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수시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50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 중심 센터' 역할을 할 여수시립미술관을 건립기로 했다. 연면적 80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2021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의 맛과 멋에 반하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성료 이틀간 22만 명 다녀가

위드 코로나 후 첫 축제 행사인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천시는 UD거리 일원에서 이틀간 '맛에 반하고 멋에 취하다' 주제로 열린 '2021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에 2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순천의 미래비전인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의 시범 UD거리에서 옥천면 수상 무대를 설치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개막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들과 관

객들은 일상으로의 첫 축제라는 의미에서 참여와 체험에 시간을 들였다.

평형속·최양락의 수다스런 요리교실,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고 맛도 좋은 푸드포차, 순천만 야시장 푸드트럭,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판매되는 아트마켓, 지역 청년 해설가 청춘여행길잡이 '청춘캠프닉', 호남호국기념관 전시·체험, 코로나19 긴 터널을 건너온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 '희망의 담벼락', 지역공연팀 '아고라'와 청소년공연팀, 거리 공연 등 순천의 맛과 멋이 함께 어우러졌다.

이틀간 22만 명이 방문하면서 축제장은 북새통을 이뤘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상가매출도 증가해 상가운영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평을 받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서 청년 유림대회 성균관유도회 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가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청년 유림대회가 13일부터 이틀간 보성에서 열려 성균관 본연의 자세 확립을 통해 유교의 밝은 미래를 지향할 것을 다짐했다. 유림대회 참석자들은 14일 나철기념관, 충절사, 대계서원 등 전남지역 문화유적을 방문하고 보성향교를 찾아 문묘향배를 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오동도 동백열차.

여수 오동도 명물 동백열차 운행 재개

위드 코로나 맞춰 1년3개월만에

여수시 오동도의 명물 동백열차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1년 3개월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동백열차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해 8월 운행을 중단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15일자로 운행을 재개했다.

오동도 동백열차는 총 2대로 길이 27m, 폭 2.3m 규모이며, 최고 주행속도는 약 15km/h이다.

지난 7월에도 운행을 재개하려 했으나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운행 재개에는 어려

움을 겪었다.

여수시는 탑승객의 안전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탑승 정원의 75%인 75명을 탑승 시킬 예정이다. 또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을 초과하는 승객은 탑승시키지 않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와 오동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백열차 운행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는 실정"이라며 "탑승객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 바랍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청정 전남 으뜸 마을사업 95% 완료

구례군이 올해 추진한 청정 전남 으뜸 마을의 1차년도 사업이 95% 이상 마무리됐다.

전남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진행된 '청정 전남 으뜸 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와해되는 공동체 정신 회복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8개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5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정한 사업 내용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구례읍 동산마을은 마을 입구에 쓰레기더미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에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했으며, 주민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물건을 모아 마을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산동면 원촌마을은 마을 주민인 한 화백의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벽화를 그렸다. 오래된 상가에 역사와 특성이 잘 살아났다.

또 산수유꽃축제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길목 나대지에 꽃을 심어 마을 이미지 변화에 힘썼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청춘작당 3년의 기록전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춘작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 청년들의 시골 정착기에 대한 기록을 담은 전시회가 최근 곡성읍 6070 청춘공작소에서 열렸다.

청춘작당은 도시 청년들이 일정 기간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3회째 진행 중이다.

올해 청춘작당 3기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총 37명이 참여해 이 중 8명이 곡성군에 정착할 예정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